

금리 3.5%로 3연속 동결...경기·금융 불안 초점

한은, 한미 1.75%P 차 유지...물가 3%대로 진정 4개월간 3.5%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수출 부진에 성장률 전망 1.4% 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머물면서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금리가 세 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는 앞으로 수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되고 IT 경기 반등 시기, 중국 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 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 등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리는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씩 두 차례 올려 모두 3.00%포인트 높아진 바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금리를 동결을 결정할 때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000만 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포인트)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포인트(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이날 발표로 이번 금리 인상이 최종금리가 3.5%로 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75%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춘 것은 당초 예상보다 정보기술(IT) 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남뉴스

“윤 정부 공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위, 국힘 시당에 건의서 전달...김정현 시당위원장 “시당 차원 관심”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추진위”는 2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방문해 김정현 위원장을 면담하고 초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비 예산 확보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호남권 핵심 공약인 ‘한국판 아우토타’이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23년 설계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힘 광주시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된 호남권 당정간 예산정책협의 회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논의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약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023년 설계용역비 확보, 2024년 예비타당성 통과, 2025년 관련 예산 반영, 2026년 고속도로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정부 여당을 비롯한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 대상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 있다.

추진위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6월 중 조기 착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초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에 필요한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시절 광주를 직접 방문해 발표한 지역공약으로, 광주와 영암의 F1경기장 47km를 잇는 국내 유일 무제한 속도 고속도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T 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MOU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본사에서 KT와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MOU를 통해 한전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대상자 확인 및 시스템 등록 ▲서비스 운영 및 비용정산, KT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데이터 제공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KT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용망을 구축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 1인가구 독거노인,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 SK텔레콤 가입자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KT 가입자에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정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는 한전의 ‘1인가구 안부살림 서비스’가 반영되기도 했다.

송호승 한전 디지털솔루션부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고민해준 KT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효성첨단소재, 2년 연속 ‘지속가능 선도기업’ 선정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150대 지속가능 선도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지속가능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선도기업’은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가

1200개 이상의 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해 분석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해 준다.

2회째를 맞는 이번 조사에서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2년 연속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최고경영진이 직

접 주관하는 위원회를 갖추고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배출량 관리 및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저탄소 친환경 제품 및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 최대 온라인 유통박람회 ‘광주전남유통인쇼’ 내달 23일 개막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와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주제로 ‘2023 광주전남유통인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온라인 전문셀러, 공동구매 사업자, 인플루언서 등 이커머스에서 활동하는 유

통사업들이 주요 참가객으로, B2B와 B2C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소비재 제품의 온라인 및 전국적인 판로확대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통사 공급 상품, 자치단체 특산품, 중소벤처기업 제품, 조달 혁신제품,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 각종 온라인 비

즈니스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참가하는 호남 최대 유통 전문 박람회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사 기간 같은 장소에서 ‘2023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도 동시에 열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와인하우스 매장 리뉴얼 오픈 이벤트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본관 지하1층에 위치한 와인하우스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광주신세계 와인하우스 매장은 총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며, 잭다니엘, 잭다니엘 허니, 잭다니엘 애플과 캔터키 버번 위스키 등 위스키 12종을 판매한다.

이번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데일리 와인 특가 상품으로 ‘1000스토리 진판텔’을 2만 5000원, ‘칸타모스카토 골드 에디션’을 2만2000원, ‘로 조콜라이오 바롤로 2018’을 5만원에 판매한다. 또 10만원 이상 구매시 버건디잔(200개 한정)을 30만원 이상 구매시 와인 상급 캐리어(20개 한정)를 증정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4.69(-12.76)
↓ 코스닥	847.72(-7.74)
↑ 금리(국고채 3년)	3.480(+0.102)
↑ 환율(USD)	1326.00(+8.60)

aT-몽골 EFES그룹 ‘K-푸드’ 수출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몽골 유통기업 EFES그룹과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몽골 EFES그룹은 1996년 설립 이래 슈퍼마켓 유통부터 외식·무역업·건설업 등 사업영역을 확장 중인 그룹으로, 현재 자사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소스류, 라면류 등 다양한 K-푸드를 유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활성화 협력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동참 등 ESG경영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한류 인기로 K-푸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유망 수출시장인 몽골의 유력 유통기업과 협력하게 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동참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도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조달청, 전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지난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동지사에서 전남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30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수공급자 계약(MAS), 혁신제품 등 조달제도에 대한 설명과 농공단지 활성화 및 판

로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배성 광주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조달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